09p 2012.3.30 7:52 PM 페이지1

CGMP 인증업체
화장품, 의약외품 OEM&ODM 전문기업
리베코스
www.liebecos.com 02.539.3891

Click!

앤디 파킨슨 칸타 월드패널 아시아지역 대표

"한국산 화장품 글로벌 진출의 적기는 바로 지금"

다양한 유형 · 제품 혁신성 강점으로 활용
한류 영향 타깃층과 현지 유통 이해 필수

"한국산 화장품이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다양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형이 많아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시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달말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앤디 파킨슨 칸타 월드패널 아시아지역 대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한국에서 강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수입과 국산, 균형의 차이인데 그의 눈에는 한국만큼 로컬 화장품이 강한 나라가 없어 보인다.

"2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던 한류가 서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냈습니다."

앤디 파킨슨 아시아 대표는 베트남의 18~34세가 사용하는 화장품 중 1/3이 한국산 화장품이라며 한류가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채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아시아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한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시아권에서 영향력이 큰 스타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귀뜸했다.

"한국은 일 때문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얼마전에는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주니어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공항에 나와있는 팬 무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류를 눈으로 실감했지요."

한국산 화장품이 글로벌 확산 전략을 펴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물론 시장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 장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기회는 있다는 게 앤디 파킨슨 대표의 시각이다.

"매스와 함께 프리미엄 시장이 양극화 되어 있는 태국에선 요즘 편의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태국 제조사는 1회용 스킨케어를 만들어 편의점으로 유통시키며 매스시장 확대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스킨케어의 6%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됩니다."

관심을 두어야 할 시장으로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을 꼽았다.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베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화장품 유형 확장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도 성장중이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선 더 세부적으로 시장을 파고들어야 한다.

"영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온지 8년 정도 됐습니다. 당시만해도 유럽에선 한국을 거의 몰랐습니다. 유럽 소비자에게 한국 브랜드를 사겠느냐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LG, 기아가 품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놨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해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혁신적이라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 앤디 파킨슨 대표가 볼 때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게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그는 세계로 향하는 길에 스스로 벽을 쌓지 말고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동 정]

아모레, 차승원 메디안 모델 발탁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 메디안의 새 모델로 배우 차승원을 발탁했다. 차승원은 '메디안 치석케어 대국민 공개 실험 캠페인'을 알리는 온라인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제두피모발협회, 마케팅 세미나 개최

(사)국제두피모발협회(이사장 김영배) 지난 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토마토데이' 신 마케팅전략, 브랜드 앱(APP)의 성공비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인 사]

이윤제 화장품정책과 사무관 서기관 승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6일자로 고위 공무원 승진을 단행했다.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의 이윤제 사무관이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부 음]

신동관 전 태평양 부회장 별세

신동관 전 태평양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58년 아모레퍼시픽 전신인 태평양화학에 입사해 1985년 태평양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의왕시 학의동 선산에 안장됐다.

[신 간]

윤천성 교수 '뷰티산업경영론' 출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윤천성 교수가 '뷰티산업경영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04년 첫출간한 '뷰티산업과 살롱경영'의 개정판이다.

'뷰티산업과 살롱경영' 출간 후 수년이 지난 지금은 미용업이 뷰티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미용경영' 교과가 전문대에서만이 아니라 4년제와 대학원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돼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학문적인 제호를 붙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뷰티산업경영론'이라고 제호를 붙였다. 이 책은 3부8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 협약식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서울병원과 지난달 29일 여성 암환우의 피부 상태 변화에 대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유방암 치료에 따른 피부 상태 변화와 삶의 질 관찰 연구' 과제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클리오 모델 이효리 사인회 성황

클리오가 지난달 17일 올리브영 건대 스타시티점에서 이효리 팬 사인회를 열었다. 2011 메가 히트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던 클리오 '젤프레소 펜슬젤라이너'의 2012 신제품 '젤프레소 팝컬러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진행됐다.